



중학생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 영 숙¹⁾ · 한 수 정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갈등적 시기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청소년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문제행동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적응문제는 여러 문제행동을 표출하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 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청소년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에 있다.

최근 청소년 행동문제의 심각성과 그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행동문제의 원인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김선희, 2000; 이경님, 2004). 많은 연구들은 행동문제의 근원을 가족환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가족환경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며 부모자녀관계의 기초는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애착의 초기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아동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깊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Bowlby(1969)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하면 영아의 어머니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경험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의 질적 특성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어, 전 생애동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이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비행 및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일반 청소년집단보다 안정애착 수준이 더 낮으며(김재희, 김주선, 200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예언 변인(이경님, 2002)임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행동, 특히 폭력가해학생 행동의 성향으로 설명되는 요인들로는 공격성,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 낮은 자아개념, 장래에 대한 희망, 우울 등이 있다(배문조, 전귀연, 2002). 이 중에서도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청소년은 사려성이 결핍되어 인지적 문제해결에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ldman & Wentzel, 1990). 또한 이러한 성향은 충동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두섭, 민수홍, 1996).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깊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Bowlby(1969)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하면 영아의 어머니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경험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의 질적 특성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어, 전 생애동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이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비행 및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일반 청소년집단보다 안정애착 수준이 더 낮으며(김재희, 김주선, 200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예언 변인(이경님, 2002)임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의 행동, 특히 폭력가해학생 행동의 성향으로 설명되는 요인들로는 공격성,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 낮은 자아개념, 장래에 대한 희망, 우울 등이 있다(배문조, 전귀연, 2002). 이 중에서도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청소년은 사려성이 결핍되어 인지적 문제해결에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ldman & Wentzel, 1990). 또한 이러한 성향은 충동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두섭, 민수홍, 1996).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주요어 : 청소년,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1)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jhan@konyang.ac.kr)

투고일: 2009년 9월 18일 심사완료일: 2009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10월 31일

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정자, 2005; 하영희, 2003).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따르면 가정 내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자녀의 일탈행위발생에 대한 부모의 인지, 자녀의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처벌을 통해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육방식은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에 따라 얼마나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을 함께 문제행동과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는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연구(남현미, 1999; 이경남, 2002; 고정자, 2005) 등으로 자기통제력의 주효과(main effect)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고,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어떻게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mediate effect)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현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부모간의 애착이 감소하는 요즈음 청소년의 부모-자녀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부모-자녀 변인들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자녀 건강증진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셋째,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이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에 자기통제력이 미치는 매개성을 탐색하는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T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남녀공학 중학교의 3학년 학생 520명이었고, 이 중 미흡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를 제외한 467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중학교 선정은 대전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기준인 동부지구의 3개구, 서부지구의 2개구 지역중동일한 지역 표집을 위하여 서부지구의 2개구 지역에서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각각 1개교씩 2개교를 표집하였다.

연구 도구

● 부모-자녀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Armsden et al., 1991)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이전의 척도와 달리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분리되어 조사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로써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Cronbach α 에 의한 애착척도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자기통제력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장기적인 만족추구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즉각적인 만족추구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 ‘매우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장기적인 만족추구에 관한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추구에 관한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즉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이었다.

●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김준호, 김은경, 1995). 문제행동 정도에 관한 척도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정유미와 김득성(1998)의 문제행동 척도를 기본으로 남현미(1999)가 문제행동 유형을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청소년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유의선정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행동 항목별로 '경험이 없다'에 0점을 부여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평균 경험 횟수를 기록하게 하고, 문제행동의 경증과 경험빈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제행동을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행동은 1개월에 경험한 경험횟수에 따라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로 나누어 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가벼운 문제행동: 일시적 정도 0-1점, 중간 정도 1-2점, 상습적 정도 2-3점, 중정도 문제행동: 일시적 정도 2점, 중간 정도 3점, 상습적 정도 4점, 심각한 문제행동: 일시적 정도 3점, 중간 정도 4점, 상습적 정도 5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9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도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연구의 목적, 응답자의 무기명, 설문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연구결과와 활용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학생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 응답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에서 자기통제력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9.7%, 여학생 50.3% 이었으며, 48.6%의 청소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주거형태에서는 69.4%의 청소년이 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생활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중상'(32.3%), '중하'(12.2%)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41-50세가 각각 83.5%, 78.4%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는 대졸이 47.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53.7%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N=467)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232	49.7
	Female	235	50.3
Religion	Yes	227	48.6
	No	240	51.4
Residence	Own house	324	69.4
	Rent house(deposit basis)	93	19.9
	Rent house(a monthly basis)	34	7.3
	Ect	16	3.4
Living standard	Upper	39	8.4
	Upper middle	151	32.3
	Middle	200	42.8
	Lower middle	57	12.2
	Low	20	4.3
Father age (years)	Below 40	16	3.4
	41-50	390	83.5
	51-60	55	11.8
	Above 61	6	1.3
Mother age (years)	Below 40	83	17.8
	41-50	366	78.3
	51-60	14	3.0
	Above 61	4	0.9
Father education	Middle school	32	6.9
	High school	169	36.2
	University	223	47.7
	Graduate or above	43	9.2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29	6.2
	High school	251	53.7
	University	163	34.9
	Graduate or above	24	5.2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아버지-자녀 간 애착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 중 2.76점 이었고, 어머니-자녀 간 애착의 평균점수는 3.01점 이었다. 자기통제력 정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32점 이었다.

<Table 2> Score for parent-adolescent attachment, self-control

Variable		Min	Max	M	SD
Parent-adolescent attachment	Father-adolescent	1.10	4.00	2.76	0.54
	Mother-adolescent	1.10	4.00	3.01	0.51
	Total	1.45	4.00	2.88	0.44
Self-control		1.74	5.00	3.32	0.53

대상자의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문제행동은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

한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는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평균: 0.47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유없이 친구 괴롭히기(평균: 0.317), 음주(평균: 0.307), 흡연(평균: 0.231) 순 이었다.

중정도 문제행동에서는 돈뺏기·훔치기(평균: 0.28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물 파손(평균: 0.253), 무단조퇴·무단결석(평균 : 0.203), 허락없이 외박(평균: 0.194)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행동인 본드·부탄가스 흡입(평균: 0.015), 환각제 복용(평균: 0.006)은 아주 적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부모-자녀 애착은 자기통제력 ($r = .31,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문제행동($r =$

<Table 3> Problem behavior score over the past year

(N=467)

Problem behavior type		Min	Max	M	SD
Mild problem behavior	Going to noraebang (Karaoke) or videobang	0	2	0.132	0.42
	Going home late without permission	0	3	0.477	0.76
	Skipping class on purpose	0	3	0.171	0.45
	Going to a disco	0	1	0.015	0.12
	Going to a bar	0	3	0.112	0.38
	Smoking	0	3	0.231	0.68
	Drinking	0	3	0.307	0.64
	Pocketing school or academy tuition fee	0	3	0.156	0.44
	Cheating	0	3	0.117	0.46
	Bullying friends for no reason	0	3	0.317	0.73
	Having a part-time job at a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0	3	0.015	0.19
	Total	0	17	2.050	2.85
Moderate problem behavior	Public property damage	0	4	0.253	0.79
	Leaving school early or being absent from school without prior permission or notice	0	4	0.203	0.66
	Sleeping out without permission	0	4	0.194	0.73
	Running away from home	0	4	0.171	0.61
	Mob fight	0	3	0.058	0.35
	Joining a bad club	0	2	0.026	0.23
	Taking money from others or stealing	0	4	0.289	0.79
Total	0	15	1.194	2.35	
Severe problem behavior	Bond sniffing, butane-gas sniffing	0	4	0.015	0.23
	Taking a psychedelic drug	0	3	0.006	0.14
	Total	0	4	0.022	0.27
Total	0	32	3.266	4.84	

<Table 4> Correlation among parent-adolescent attachment, self-control, problem behavior

Variable	Parent-adolescent attachment r(p)	Self-control r(p)	Problem behavior r(p)
Parent-adolescent attachment	1.00		
Self-control	.31(<.001)	1.00	
Problem behavior	-.20(<.001)	-.31(<.001)	1.00

-20,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통제력과 문제행동간($r = -.31, p < .001$)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자녀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3가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매개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되,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의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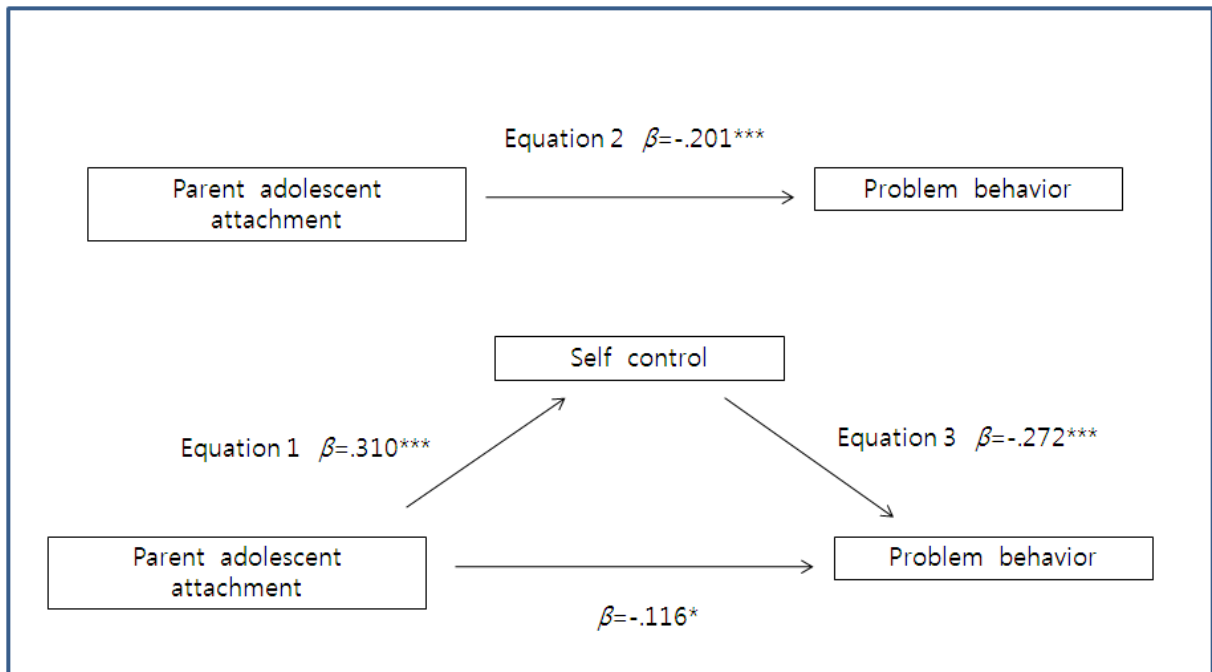
에서보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더 커야 한다. 그리고 3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못하면 완전매개이고, 유의하면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Bennett, 2000)

본 연구에서 위에서 설명한 3단계의 회귀분석에 따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인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애착이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3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애착이 종속변수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 -.2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애착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 자기통제력은 β 값 -.2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때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애착의 β 값(-.116)이 2단계의 β 값(-.201)의 크기보다 작으므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는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problem behavior

Predictors	β	F	Adjusted R ²	Additional R ²
1. Parent-adolescent attachment → self-control	.310***	49.407	.096	-
2. Parent-adolescent attachment → problem behavior	-.201***	19.541	.040	-
3. Step 1				
Self-control → problem behavior	-.272***	27.892	.107	.067
Step 2				
Parent-adolescent attachment → problem behavior	-.116*			

* $p < .05$ *** $p < .001$



* $p < .05$ *** $p < .001$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problem behavior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자녀 애착을 많이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beta = -.201, p < .001$)으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매개변수 자기통제력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beta = -.116, p < .05$)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beta = -.272, p < .001$)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자녀 애착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통제력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자녀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자의 부모-자녀 애착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자녀 간 애착 평균점수는 2.76점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보면 69점이고, 어머니-자녀 간 애착 평균점수는 3.01점으로 백분위 환산점수는 75점이었다. 이는 비교적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가족과 청소년 개인 모두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과 같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적 변화와 같은 외적인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Wigfield et al., 1991). Bowlby(198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은 애착의 중요한 차원인 부모와의 정서적인 연결성에 의해 촉진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정서적인 질이 청소년이 발달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지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동안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진숙, 2004; 하영희, 2004).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애착정도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남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 대상자들의 자기통제력 평균 점수는 3.32점으로 백분위 환산점수로 66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60점)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중간수준보다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의 부모-자녀 애착점수가 평균 이상인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

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고정자, 2005; 남현미, 1999)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에서는 유형별에서 가벼운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남현미(199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 '이유없이 친구 괴롭히기', '음주', '돈뺏기·훔치기', '공공기물 파손' 등의 문제행동 항목들은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김재엽, 이효정, 강민지(2007)의 고등학교 1학년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52.1%가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음주', '흡연' 등의 문제행동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의 약물남용경험이 아주 높다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에 비추어 볼 때 유해약물로 접어드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흡연이나 음주의 문제행동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벼운 문제행동인 노래방·비디오방 출입은 본 연구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입시간 외에는 부모 등의 보호자 동반시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장소가 또 다른 문제행동에 접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모와의 애착정도와 자기통제력,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부터 심각한 문제행동의 확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근거 중심의 간호중재를 행하기 위한 실증적인 간호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부모-자녀 애착이 자기통제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통제력도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정서적인 질이 청소년의 발달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지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안정된 부모-자녀 애착, 부모-자녀의 사소통, 부모의 관심이 적절하며 부모에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형성이 증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이경남, 2002; 이경남, 2004; 고정자, 2005)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부모 애착이 터어키와 노르웨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Asiye, 2002; Bru, Murberg, & Stephens, 2001) 즉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을수록 또한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비행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01)

자기통제력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있으며 충동적인 경향이 낮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덜 가담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희화, 2004; Gottfredson & Hirschi, 1990)와도 일치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및 충동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남용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높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 행동문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경, 2001).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높은 애착이 자기통제력 증진에 기여하고, 높은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가정의 특성에 기인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간호교육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청소년 간호중재활동에 더욱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통제력은 부모-자녀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정자(2005), 김재엽 등(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양육이 일탈행위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보고하고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은 자녀와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에 의해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의 약화가 복합되어 자녀의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Laub & Sampson, 1991). 이는 청소년의 통제력에 있어서 가족차원이 접근이 필요하며 즉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개입과 관심, 애착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와의 애착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에 따라 얼마나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인지와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력을 증진시켜 간접적으로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학생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정도 및 문제행동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부모-자녀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고등학교 시기보다 문제행동 경험에서 과도기적 전이단계로써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 가족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이러한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적절한 개입과 관심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관계와 기능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부모-자녀 관계증진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의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자녀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와 문제행동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T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남녀공학 중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4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8년도 5월 19일부터 5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자녀간의 애착정도는 평균 2.76점 이었고, 어머니와 자녀 간 애착정도는 평균 3.01점 이었다. 자기통제력 정도는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은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는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평균: 0.477), 이유없이 친구괴롭히기(평균: 0.317), 음주(평균: 0.30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정도 문제행동에서는 돈뺏기·훔치기(평균: 0.289)가 가장 많았고, 심각한 문제행동인 본드·부탄가스 흡입(평균: 0.015), 환각제 복용(평균:

0.006)은 아주 적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간 상관관계는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r = .31, p < .001$)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문제행동($r = -.20,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통제력과 문제행동간($r = -.31, p < .001$)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매개효과($\beta = -.272, p < .001$)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애착의 각 유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 태도 등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의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김두섭, 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산.
- 김연수 (2001).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심리적 가정환경요인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희화 (2004).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75-94
- 김재엽, 이효정, 강민지 (2007).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173-201.
-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3), 107-125.
-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연구: 개인·가족·학교환경·도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남 (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2, 43-54.
- 이선경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현황과 우울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진숙 (2004). 청소년 자녀기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 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1-12.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42-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116, 427-454.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 (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 Abnorm Child Psychol*, 18, 683-697.
- Asiye, K. (2002). *Prosocial behavior within the family context and its correlates among Turkish early adolescents*. Ph. D. Diss., Nebraska-Lincoln Univ.
- Bennet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 *Res Nurs Health*, 23, 415-42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1*.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 Bru, E., Murberg, A., & Stephens, P. (2001). Social support, negative life events and pupil misbehavior among young Norwegian adolescents. *J Adolesc*, 24(6), 715-728
- Feldman, S. S., & Wentzel, K. R. (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y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 Educ Psychol*, 82(3), 183-189.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Laub, J. H., & Sampson, R. J. (1991). The Sutherland-Glueck
 Debate: On the Sociology of Criminological Knowledge.
Am J Sociol, 96, 1402-1440.

Wigfield, A., Eccles, J. S., Maclver, D.,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Dev
 Psychol*, 27, 552-565.

Impact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Moon, Young-Sook¹⁾ · Han, Su-Jeong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ttach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their parents, their self-control, problem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problem behavior.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467 students in middle schools from May 19 to 30, 2008.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procedures. **Result:** 1. The students investigated received a mean score of 2.76 and 3.01 on attachment for fathers and mothers respectively. They received a mean score of 3.32 on self-control. The most prevalent self-perceived problem behavior among the students was going home late at night without permission followed by bullying friends for no reason and drinking. 2. Among parent-adolescent attachment, self-control and problem behavior, parent-adolescent attach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self-control and a negative correlation to problem behavior. 3. Self-control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problem behavior. **Conclusion:** Parent-adolescent attachment influenced problem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Self control, Problem behavio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Su-Jeo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685, Gasoowon-dong, Seo-gu, Daejeon 320-718, Korea
 Tel: 82-42-600-6344 Fax: 82-42-545-3326 E-mail: sjhan@konyang.ac.kr